

# BTS, 미 그램미 어워즈서 '삼수' 도전

###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MV' 부문 올라 오늘 선정... 다이너마이트·버터 아쉬움 달랠지 관심

그룹 방탄소년단(사진·BTS)이 한국 시각으로 6일 오전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제65회 그램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수상상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올해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와 '베스트 뮤직비디오'(Best Music Video) 부문 후보에 올랐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수록된 밴드 콜드플레이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4대 본상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 가운데 하나인 '앨범 오브 더 이어'(Album Of The Year) 후보에 포함됐다. 이 부문에서는 피쳐링 참여 아티스트, 송라이터, 엔지니어 모두를 수상자(Winner)로 기록한다.

이에 콜드플레이가 수상하면 방탄소년단은 '앨범 오브 더 이어'

수상 기록도 갖게 된다. 또 이 앨범에 송라이터로 참여한 멤버 RM, 슈가, 제이홉도 기록이 등재된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제63회와 제64회 시상식에서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버터'(Butter)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들의 그라모폰(그라미 트로피)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 외에 아바, 카밀라 카베요·에드 시런, 포스트 말론·도자 캣, 샘 스미스·김 페트 라스 등 쟁쟁한 팝스타들이 경쟁하고 있다.

한국어 노래 'Yet To Come'으로 최종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끈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 말고도 아델, 도자 캣, 캔디크 라마, 해리 스타일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망명진이 지난달



입대해 완전체 팀 활동을 잠시 멈춘 만큼, 이번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들이 K팝 가수 가운데 최초로 '남보'를 전할지에 가요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아바의 수상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그라미는 오랫동안 상을 못 받은 사람을 예우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바는 그간 단 한 번도 그라미를 타지 못했다"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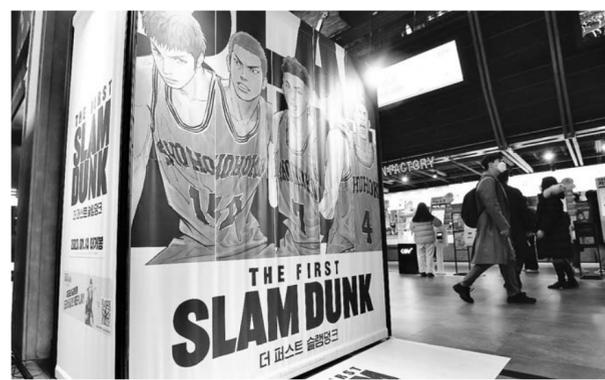
또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의 영화 한 편을 찍었기 때문에 유리한 면

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그렇지만 "방탄소년단이 '현상급' 인기를 유지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도 그간 (그라미) 트로피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젊은 층이나 유색인종 심사위원단을 중심으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수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앞서 한국인 가운데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1993년)와 음반 엔지니어인 황병준 사운드미러코리아 대표(2012년·2016년)가 '그라미 어워즈'에서 수상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슬램덩크에 3040 추억 새록새록

### 대중문화 '복고' 인기 지속

최근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계는 물론 가요계나 방송가에서도 복고풍 콘셉트로 한 음반, 작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영화·방송·가요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최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슬램덩크' 만화 단행본도 영화 개봉 이후 60만 부 이상 판매됐고, 넷플릭스 등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도 '슬램덩크' TV 애니메이션 시청 시간도 대폭 상승했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화 '슬램덩크'를 보고자한 30~40대들의 '팬심'을 제대로 겨냥했다는 평가다. 실제 영화 관객 10명 중 7명은 30~40대다. 어렸을 때와 달리 구매력을 갖춘 30·40세대는 농구용품 전반에 대한 판매량도 대폭 증가시켰고, 이에 '슬램덩크' 한정판 LP와 '슬램덩크 와인' 등 파생 상품까지 나왔다.

영화계에서는 과거 히트작의 재개봉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을 기념해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오며, TV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극장판도 오는 5월 다시 극장에서 상영된다.

복고 바람은 가요계에도 불고 있다. 1990~2000년대 이른바 'Y2K' 감성을 녹인 음반에 30·40세대는 물론 MZ세대의 취향까지 저격하고 있다.

레트로 콘셉트를 내세운 걸그룹

뉴진스는 데뷔 음반 '뉴 진스'(New Jeans)를 발매 첫 주 31만 장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중 발매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12월 그룹 NCT 드림은 원조 아이돌 H.O.T.의 '캔디'(Candy·1996)를 리메이크한 앨범을 발매하며 음원 사이트 멜론 '톱 100' 1위에 오르는 등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다.

'캔디'는 풋풋한 노랫말과 재치 넘치는 안무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히트곡으로 NCT 드림의 리메이크는 월곡을 기억하는 3040 세대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10대 팬들에게는 복고풍 분위기로 새로운 매력

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방송가에서도 2000년대 이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됐고, 지난해 방영된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닦인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풋풋한 청춘들의 성장을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복고 트렌드는 당대를 경험했던 세대들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대가 이걸 새롭게 받아들여 넓게 소비될 수 있다"며 "이러한 '뉴트로'(신복고)는 나이 든 세대를 고정적인 팬층으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세대를 유입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원하는 대로 죽을 자유를 말하다”

### 아테프 감독의 '안녕, 소중한 사람' 오는 8일 개봉

“우리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해요. 삶의 끝은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8일 개봉하는 영화 '안녕, 소중한 사람'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려는 시한부 환자엘렌(비키 크리프스 분)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티외(가스파르 울리엘)의 이야기다.

에밀리 아테프 감독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서구 사회에서 죽음은 언제나 비참하고 아득하고 끔찍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 영화의 밑바닥에 깔린 견해를 밝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지

극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에게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으면 합니다.”

엘렌은 특별성 폐색유화증 환자다. 유일한 방법은 건강한 폐를 이식받는 것이지만, 수술 후 3년 이상 살 수 있는 확률은 50%에 그친다.

엘렌은 남편 마티외에게 “의사들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싫다”며 이식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티외는 그런 아내의 선택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영화 '안녕, 소중한 사람'.

연합뉴스

아테프 감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대화가 작품 구상과 연출에 큰 영향을 줬다면서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은 아픈 사람 혹은 죽음을 앞둔 이들을 이미 죽은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엘렌을 연기한 비키 크리프스에 대해서는 “놀라운 배우”라며 “시공

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랄까. 신체적·심리적으로 독특한 존재감이 있다”고 칭찬했다.

아테프 감독은 “배우들의 연기가 탄탄하며 환하게 빛나는 영화”라며 “한국 관객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연인, 배우자, 친구와 함께 술 한잔하며 서로 감흥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이슈 픽 앤드 핏 (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재)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두뇌공조(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마녀의 게임(재) 8:30 테마여행 길 스페셜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체육교실 11:30 와썹 프리매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15:35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당동당 유치원 9:20 빅 블루 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50 EBS 다큐프라임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5:35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18:00 생방송 뒤편지 해결단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두뇌공조(재) 13:30 트레킹노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두리둥실 몽개공항 3(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연중 플러스(재) 17:50 통영뉴스를 ET	12:00 12 MBC 뉴스 12:25 이 맛에 산다(재) 13:20 헬로키즈 글로컬 동물 뉴스(재) 위험 도민 태드론티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결혼지옥	12:00 SBS 12 뉴스 12:50 동상이몽2 나는 내 운명(재) 14:00 2023 제주경제 도약을 위한 도민 태드론티 16:00 좋은아침 스페셜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농축합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예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총부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우기 20:30 내 눈에 콩깍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풍의 신부 20:30 이별도 리콜이 되나? 21:50 두뇌공조 23:00 오늘 행복하다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트롤리 23:10 동상이몽2 나는 내 운명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농축합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송 17:05 시사예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총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양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6일**

김종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문서 계약안이 흥하니 중요사안은 다음을 기약하라. 48년 관제구설의 시끄러움이 들린다. 매사에 신중하라. 60년 돈 문제로 처가나 시댁과 다툼이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72년 자식 문제로 고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라. 84년 이성관계에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양보.

**42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보증을 보류. 54년 나를 찾는 이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으니 초청 모임에 적극 응하라. 66년 넘치는 만능은 오히려 독이 되니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라. 78년 주변의 갑언설이나 신경을 쓰거나 조심해야 한다. 90년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 먼저 마음을 비우라.

**37년** 마음이 평화로운 저는 인생이 아름답다. 49년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함을 잊지 마라. 61년 분실, 도난수가 있으니 문단속 주의. 부부금슬 적신호. 73년 업무의 성과가 미약하고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85년 친구나 동료와 의견대립이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라.

**43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의 행운이다. 55년 등업이나 투자 문제로 주변 또는 친구와 의견을 나눠 볼 것. 67년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어 된다. 79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를 가져 오는 지혜가 필요. 91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38년** 자식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으로 건강을 해하지 마라. 50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 기계고장이나 임무의 하자로 지연이 된다. 74년 집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오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안부전화. 86년 무언가 새롭게 바뀌려고 마음이 동요.

**44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 줄 것. 56년 부인의 배려가 있는가 하면 불화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68년 주어진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이익이 있다. 80년 카운슬러·간호·항방 분야 종사자는 상사의 칭찬 또는 인정받는다. 92년 돈 문제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

**39년** 산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것이다. 51년 내일을 기약하는 지혜가 필요. 무리수 금지. 63년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분주하다. 도움을 요청하라. 75년 군중심리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냉철하고 철저한 본인관리가 요구. 87년 이따금씩 떠나고 싶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45년** 약속 지체 시 신뢰가 떨어진다. 57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접 본인이 느껴야 한다. 69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것 같다. 81년 정보활용이 절실하다. 평생교육 현장을 통해 지식 습득이 필요. 93년 마음이 변장하고 어수선하다. 자신을 가꾸는 변화도 중요.

**40년** 강한 추진력이 결과를 얻는다. 밀어붙이는 파워의 승전보가 있다. 52년 매출이 증대되고 거래가 활발하다. 64년 물질적·정신적전제로 갈등이 생긴다. 직업으로 갈등은 불리. 76년 친정의 소식을 접하거나 여행, 외출을 한다. 88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46년** 아랫사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58년 물류업이나 유통업은 분주하고 할 일이 늘어난다. 70년 자격증을 한 개정도는 취득하는 해로 정해진다. 82년 능률적인 학습전략이 자격증이나 시험을 유리하게 한다. 94년 친구나 동료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

**41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가 아플수 있다. 53년 자식의 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한다. 과도한 충고는 자제. 65년 학군이 말에서 시작되니 언행에 신중하라. 작은 심수가 큰 후회를 만든다. 77년 이동, 변동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89년 충고는 사랑에서 시작됨을 알라.

**47년** 지갑 소지품을 분실하니 주의. 내부 소행이 될 수 있다. 5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소식도 온다. 71년 분위기에 합류하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 83년 축복에 시간이 되도록 나만의 실계 계획이 필요하다. 95년 모임에 참여하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